

사·랑·의·연·극·잔·치

인파크 기념공연 2

잘자요
GOOD NIGHT MOTHER
엄마

마샤노먼 작
이성규 연출

인파크 소극장
(동래전철역)

2001. 7. 4 [수] ~ 7. 10 [화]

평일 - 7시 30분, 토·일-3시, 6시

▶문의전화 : 506-5925 / 016-558-4364

▶제 작 : **부두**연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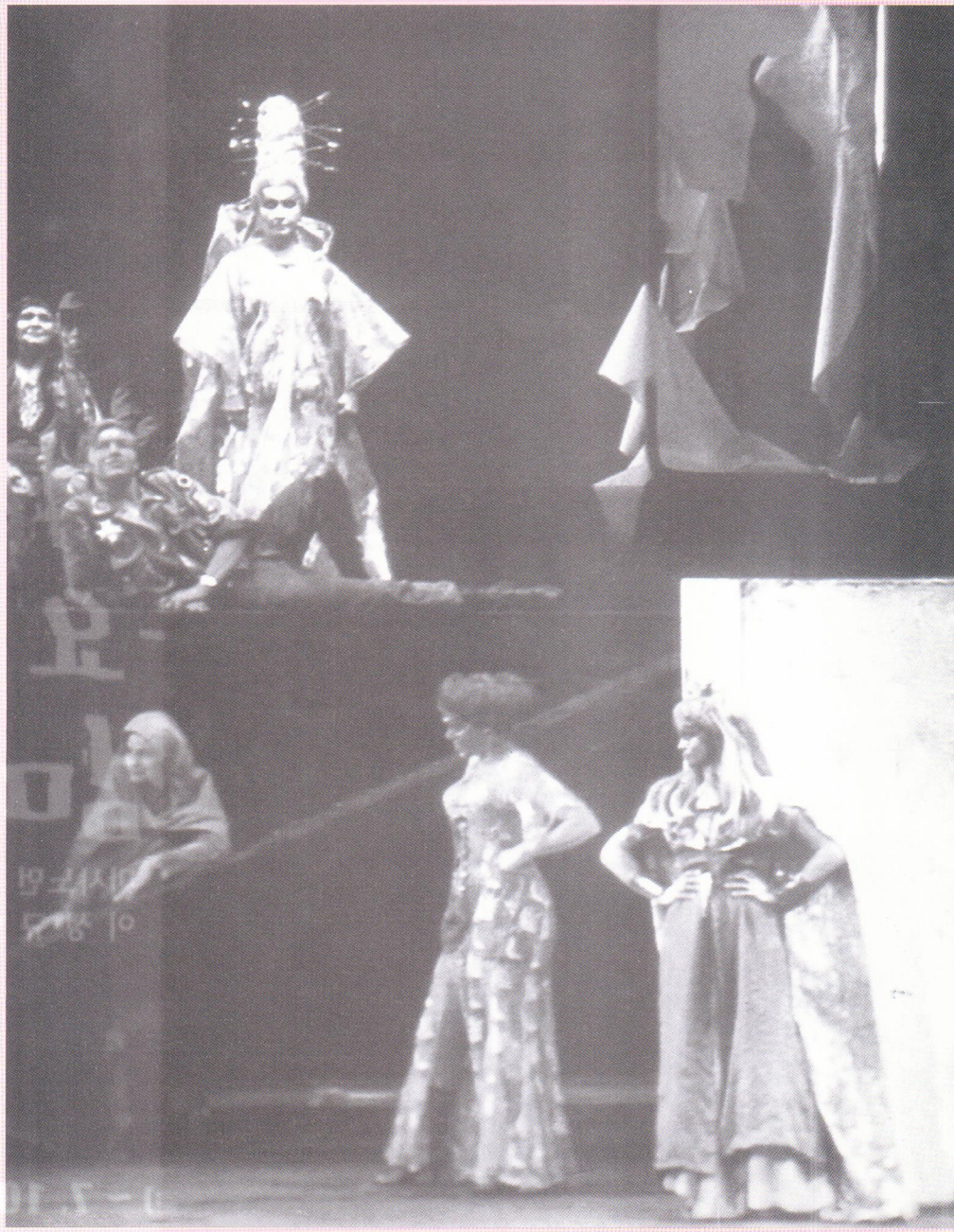
부두연극단 차기공연 작품

무대월성회 지원사업

갈보집

10월중 예정

장, 주네 원작
김상규 번안
이성규 연출



현대문명사회를 갈보집으로 비유하고, 인간의 존재양식을 성(性)과 환상의 연극놀이로 규정한 장, 주네 원작.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에 의하여 성인(聖人)으로 추앙된 도둑·남색가(男色家) 경력의 기인(奇人) 장, 주네 원작.

대구에서 현대 프랑스 연극을 강의 하고 있는 젊은 재원 김상규의 요절 복통할 해학적 번안.

제의극(祭儀劇) 부조리극 등에 솜씨를 보여온 중견 연출가 이성규의 새로운 해석!
과격한 무대! 훨씬 쉽고 재밌게 닦아온 性의 향연



부두연극단

SINCE 1984



잘자요 엄마

사·랑·티·켓·참·가·작



작 / 마샤노먼
 연출 / 이성규
 무대감독 / 최향운
 무대 / 주광희
 조명 / 윤준호
 음악 / 이반
 의상 / 김보영
 소품 / 문지연
 진행 / 송지연



제 시 / 우 명 희



엄마 / 박 선 미

작품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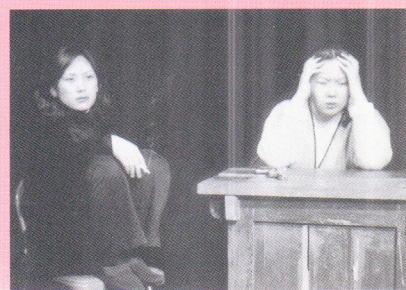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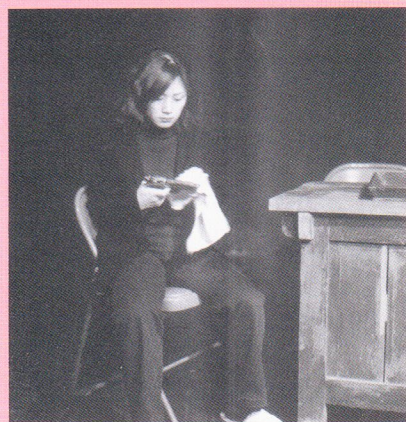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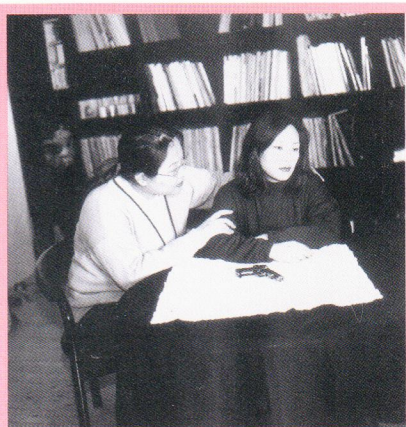
도시근교의 외판집에서 살고있는 두 모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엄마는 과부이며, 딸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써 집안 살림을 맡아보고 있다. 그런데 극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은 엄마에게 광고전단의 한 귀절처럼 “엄마, 나 자살할꺼야”하고 내뱉는다. 그리고 이후 1시간30분동안 엄마와 우리 모두는 그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처음에 코웃음치던 엄마는 극이 진행되면서 차츰 공포에 사로잡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딸을 설득시키려 애를 쓰고, 딸은 엄마를 위해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집안을 정돈한다. 이후 무대는 딸의 생명을 건 처절한 싸움터가 된다. 그러나 결국 엄마의 기대는 무너지고 관객들은 비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자살의도의 표명으로 시작하여 총소리로 끝나는 이 연극은 우리에게 “제시는 왜 자살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사회심리학적인 고찰을 하게 만든다. 그런 과정속에서 제시(딸)는 현재 간질병이 있으며 그래서 외부와 답을 쌓고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며, 그런 이유로 남편(세실)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며, 아들(릭키) 또한 가출중이며 범죄자로서 성장해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다. 또한 이웃에 사는 오빠(도슨)와 올케(로레타)도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우월감으로 제시를 어린애 취급하며, 엄마(델마) 또한 5살때부터 시작된 딸의 간질병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으며 딸을 부려먹기위해 집에 데리고 와 자기 편의대로 다뤄왔음이 밝혀진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제시는 세상의 무관심과 위선, 그리고 가족들의 자기본위, 물이해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자아는 이제 회복 불가능인 상태다. 그래서 제시는 마지막 남은 자살 -자기 생명에 대한 유일한 권리-자기 목숨을 스스로 처분할 권리-를 역설하면서 항변의 총을 쏘아 버린다.

제시의 죽음을 통한 자기주장은 역설적으로 현대 가정의 몰락, 진정한 사랑으로서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인의 황량한 인간 관계에 경종을 던져주는 작품으로 남게 된다.





마샤, 노먼

영화 갯팅 아웃(Getting Out)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샤노먼(Marsha Norman)은 미국 캔터키주 루이스빌 태생의 여류로써 잘자요 엄마(Good Night Mother)로 1983년도에 25년만에 드라마 부문에서 풀리처상을 수상케한 장본인이다. 또 한 사람의 여류 풀리처상 수상자인 '마음의 범죄'를 쓴 버스헨리(Berth Henri)와 함께 미국 페미니즘 연극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마샤노먼은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작품에 투영하는 드문 재능의 리얼리스트로서, 주로 여성의 정체성을 책임과 용기라는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마샤노먼의 주된 관심사는 첫 작품인 갯팅아웃이라는 작품제목에서 보여지듯이 "탈피"라는 문제이다. 노먼은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용감한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남성우위의 사회체제속에서 여태껏 어쩔수 없이 매어있던 가족,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과거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이들 여주인공들은 작품속에서 결혼과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찾는법을 터득해 나간다.

마샤노먼은 고등학교 3학년때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Why Do Good Man Suffer?)라는 제목의 수필로 작문경연대회에서 일등을 차지하면서 평생을 문학을 위해 살기로 하고,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한다. "난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말하는 마샤노먼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들의 용기를 철학적으로 천착해 들어가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잘자요..."는 그녀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일련의 사건에 토대를 둔 작품으로서 노먼의 개인적인 경험과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 작품은 지방에서 대성공을 거두어 오프-브로드웨이를 거쳐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여 대단한 흥행적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서 그 성공은 리얼한 노먼의 문체와 문제의식, 그리고 연극에 대한 열정,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그녀 특유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따금 자살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그러나 자살자들은 일종의 인생 패배자이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쉽게 간주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종종 망각된다. 마샤노먼은 이러한 국외자에게도 진정한 이해와 인간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잔인하고도 파국적인 결말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성을 환기시키는 위대한 휴머니즘적 성과를 낳았다.

마샤노먼은 현재 미국여성연극협회(Women's Theater Council)의 중요 멤버로서 연극제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성위주로 편성된 연극계에서 여성 극작가의 위치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제작자인 남편과 함께 여성연극의 발전과 신장을 위해서 정력적인 활동 및 작가적 관점에서 동료 및 후배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부두연극단